

현내면

현내면은 법정리 10개리 행정리 16개리 8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90,24km²이며, 북위 38° 30' 00"을 기준으로 대진리 앞바다에 어로운계선이 지나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통일전망대와 화진포를 소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진리, 철통리, 죽정리, 산학리, 화곡리, 마달리, 마차진리, 명파리, 배봉리, 제진리, 사천리, 검장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내면 시민기자 박선애(sarang365@nate.com)
 ※현내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이귀남 장관 철책 장병들 격려

지난 18일 육군 22사단 방문...통일전망대

지난 18일 고성군 최북단 현내면 통일전망대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다.

이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해 GOP 관할부대장으로부터 현황 등을 보고받고,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동안 최전방을 든든히 지켜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한 후 철책선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며 “지난 해 세계 7위권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이귀남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현내면 명파리 통일전망대에서 부대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안보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국방의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애 시민기자

우리 마을 일꾼 ◇마차진리 유인영 이장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희망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현내면 마차진리는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이런 평가도 무의미해지고 있다.

6년째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인영 이장(56세, 사진)은 “우리 마을은 공장 등 생산시설이 없어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남북교류가 잘돼서 마을이 전혀럼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5세대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차진리는 주민들이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반농반어 마을이었지만, 금강산 관광의 영향으로 건어물상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늘었다. 그래서 금강산 육로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어느 마을보다 더욱 크다고 한다.



해안을 끼고 있는 고성지역의 마을들이 대부분 그렇듯, 마차진리도 여름철에는 마을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철책선 안에 있는 무인도인 ‘무송정’을 기준으로 좌우로 2개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어, 대도시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차진리도 고성군의 여느 마을처럼 젊은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다. 유이장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마을을 떠드보니 어르신들만 남게 돼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며 “이번 겨울은 그나마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성태 건조산업 시범단지가 조성돼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유 이장은 올해부터 임기 2년의 현내면 이장협의회장도 맡아 더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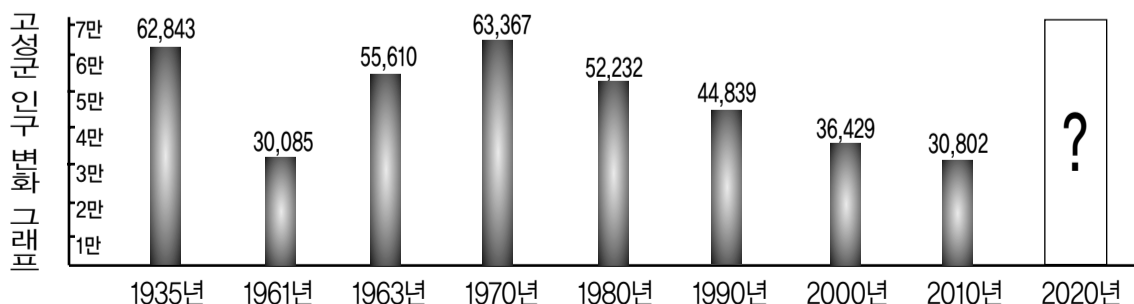
현내면 연초순방

2011년 현내면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승근 기자

고성인구 늘리기 고성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전입 세대에 고성신문 1부를 1년간(4만원) 무료로 배부합니다



전입세대 무료 구독신청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